



REPORT

2021

제주4·3유적지
시민지킴이단

활동보고서



기억하고 싶은 길
제주다크투어



JEJU DARK TOURS
The Unforgettable Past

2021

제주4·3유적지
시민지킴이단
활동보고서



기억하고 싶은 길
제주다크투어



JEJU DARK TOURS
The Unforgettable Past




제주다크투어는 여행을 통해 오감으로 역사를 느끼고
다시는 제주4·3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제주의 4월을 기억해주세요

4·3평화기행을 비롯해 사라져 가는 유적지 기록,
4·3강좌 개최 및 다양한 국내·외 연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1
제주4·3유적지
시민지킴이단
활동보고서

 제주4·3이 머우꽂?	04
 제주4·3유적지 시민지킴이단	06
시민지킴이단 결성이유	
시민지킴이단 활동소개	
 (사)제주다크투어와 함께 하는 법	36

4·3이 머우꽂?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4·3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 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입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원래 하나의 나라였던 한반도는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됐지만 냉전의 여파로 남북으로 나뉘어져 미국과 소련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기 속, 1947년 3월 1일, 제주도에서 열린 3·1절 28주년 기념대회 중 경찰의 발포로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월 10일, 제주도 전역에서 이에 항의하는 민·관 총파업이 일어났습니다. 제주도 내 직장 95%가 참여하는 대대적인 규모의 파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군정은 적절한 사과와 대응 대신 탄압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제주도민들은

단독 선거를 한 달여 앞둔 1948년 4월 3일, 제주도 전역에서 미군정의 탄압과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봉기를 일으켰던 무장대(인민유격대)가 외친 구호는 ‘경찰 탄압에 반대한다, 단독선거 반대한다’였습니다. 불행하게도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11월 중순경부터 약 4개월 동안 ‘초토화 작전’이라는 미명 하에 제주도민들을 더욱 가혹하게 탄압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제주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3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군·경과 극우청년단체 등에 의해 학살 당했습니다. 해안가 일부 마을을 제외한 중산간 마을 대부분이 불에 타 사라졌습니다. 이후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되면서 4·3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금기의 역사, 제주4·3

그러나 4·3으로 인한 고통은 계속 되었습니다. 권위주의 군부독재 시기를 비롯해 약 50년간 4·3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금기시되었습니다. 4·3과 관련한 연좌제로 많은 제주도 청년들이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정권의 필요에 따라 '조작간첩'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문화계와 언론계, 시민사회 인사들은 4·3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1999년에는 4·3 당시 이뤄진 불법 군사재판을 증명하는 수형인명부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2000년에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4·3특별법이 제정·공포되었습니다. 2003년 10월에는 국가차원에서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4·3 당시 자행된 국가폭력에 대해 제주도민들에게 공식사과했습니다. 4·3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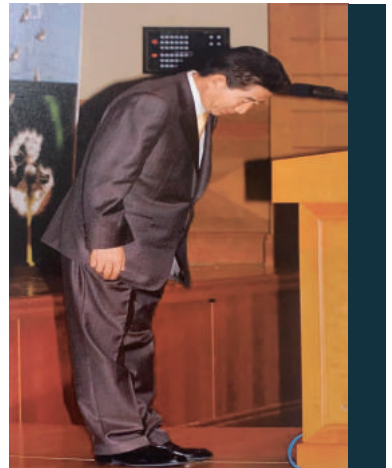
제주4·3은 현재진행형

이후 2021년 2월에는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피해보상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4·3희생자 유족 및 시민사회단체, 문화계, 언론계 그리고 4·3의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가져준 제주도민과 국내외 시민들이 함께 이뤄낸 역사적인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4·3의 정명(正名) 문제와 민간인 학살에 대한 미군정 책임 규명 문제 등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



2003년 10월 15일 확정된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2003년 10월 31일 국가수반의 공식사과



2018년 10월 31일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주 4·3 미국 책임 촉구 10만인 서명 전달식'

제주4·3유적지 시민지킴이단

2020년 11월, (사)제주다크투어는 제주도 내 다크투어 유적지 100곳에 대한 유적지 안내판 조사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4·3유적지 안내판 현장 조사 결과,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역사적 사실의 오류가 있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인권·평화·젠더감수성이 결여되어 있는 안내판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4·3을 기억하고 기록하기 위해 유적지에 제주의 역사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명기하고 인권·평화·젠더감수성에 기반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작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해당 보고서의 후속작업으로 실제 안내판이 부실하거나 부재한 4·3유적지 10곳을 선정하여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캠페인을 진행해 변화를 실제로 이끌어 내고자 제주4·3유적지 시민지킴이단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발간된 유적지 안내판 조사보고서



2021년 6월 발간된 유적지 안내판 조사보고서 개정판

제주4·3유적지 시민지킴이단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적지임에도 조명받지 못하거나 소실될 위기에 있는 4·3유적지를 발굴해 알리는 **시민 참여형 캠페인**입니다.

시민들은 직접 유적지를 답사하고 현재 관리 및 보존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안내판 내용을 알리는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답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유적지에 대한 사전 조사를 진행하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유적지 안내판을 만들었습니다. 안내판은 향후 실제로 유적지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꼼꼼히 구성하였습니다.



제주4·3유적지 시민지킴이단 모집 일정은 제주다크투어 SNS 계정을 팔로우 하시거나 뉴스레터를 구독하시면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4·3유적지 시민지킴이단 활동은 아름다운재단 이 지원하는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주4·3유적지 시민지킴이단 활동소개

#01 유적지 10곳 사전 조사 및 안내판 제작



2021년 6월,

제주4·3유적지 시민지킴이단은
본격적인 현장 답사에 앞서
두 번의 사전 모임을 가졌습니다.

시민지킴이단원은 각자 유적지 1곳을 선정하여 각자의 방식으로 유적지에 대한 사전조사 및 현장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전 조사한 유적지의 개요와 실태를 공유하고, 안내판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제주4·3유적지 시민지킴이단 답사에 나서다 #02

#20210710_첫 번째 답사

*이날 답사에서는 대표적인 제주4·3 문인 중 한 명이면서 수십 년간 진상규명운동을 전개해 온 제주4·3 운동의 산증인 김경훈 시인이 유적지 해설을 맡았습니다.

#1 도령마루



주소: 제주시 용담2동 1805(안내판1), 용담2동 1760-1(안내판2)

제주의 관문인 제주국제공항에서 차로 5분 남짓한 거리에 있는 도령마루는 제주4·3 당시 일상적으로 토벌대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자행됐던 장소입니다.

당시 이곳은 소나무가 우거진 수풀 지형이었습니다. 이 지역 인근으로 용담리, 연동리, 오라리가 함께 인접한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도령마루에서는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물론 멀리 사는 주민들도 이곳으로 끌려와 토벌대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3세 이하의 아기들도 이곳에서 희생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희생자 규모는 60~70명 정도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적지 건너편 교통섬에는 지난 2019년 4월 5일에 세운 방사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방사탑은 이곳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넋을 기리고 부정을 막기위해 설치됐습니다. 방사탑이 완성된 바로 이튿날에는 이곳 도령마루에서 해원상생굿이 봉행됐습니다.

현재 이곳이 제주4·3유적지임을 알리는 표식은 지난 2018년 (사)한국작가회의 제주도지회와 탐라미술인협회가 함께 세운 작은 나무 표지판이 전부입니다.

표지판은 도로에서는 보이지 않는 길가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사실상 안내판의 역할을 십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도령마루는 도심권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동안 조명을 받지 못한 **제주4·3 학살터**입니다. 제주4·3유적지 시민지킴이단은 4·3 당시 학살터였던 도령마루를 알리고 안내판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도령마루로 나섰습니다.



시민지킴이단은 직접 내용을 구성한 안내판을 들고 해원방사탑 앞에서 **인간안내판 퍼포먼스**를 펼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인접 도로를 지나는 사람들이 방사탑을 보고 궁금증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에도 안내판을 세우는 등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학살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해원상생굿 등 진상규명운동이 벌어진 장소나 내용에 대한 안내도 필요합니다.





#2 제주국제 공항

주소: 제주시 공항로 2 (용담2동)

제주국제공항(정뜨르 비행장)은 제주4·3 당시 최소 700여 명이 학살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토벌대는 무장대(인민유격대)와 협력했다는 구실을 들어 주민들을 집단학살했습니다.

이곳에서 벌어진 학살은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규모나 시기 등의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증언 등을 통해 드러난 내용을 살펴보면, 1949년 10월 2일 제2차 군법회의(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은 주민 249명이 집단학살되었습니다.

4·3 당시 제주에서는 크게 두 시기에 걸쳐 군법회의가 진행됐습니다. 후에 이 재판들은 최소한의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엉터리 재판임이 밝혀졌습니다.

2018년부터 당시 군법회의로 수형인이 된 사람들에게 대한 재심 재판이 이뤄지고 있으며, 모두 공소기각 및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벌어진 예비검속에서도 무려 500명가량의 주민이 이곳에서 학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토벌대는 예비검속으로 제주경찰서와 제주항 인근 주정공장에 구금되어 있던 주민들을 이곳으로 끌고 와 학살했습니다.

희생자들은 제주경찰서 관할지역인 제주읍, 조천면, 애월면 지역의 예비검속자들입니다. 그리고 서귀포경찰서와 모슬포경찰서 관할지역 예비검속자 중 일부도 이곳에서 학살되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희생자 유해 발굴 조사가 이뤄져 387구의 유해가 발굴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활주로 인근에는 희생자들의 유해가 빛을 보지 못한 채 묻혀있는 상황입니다. 유해 발굴은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제주국제공항 활주로 내에 유해 발굴과 관련된 안내판이 있기는 하나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안내판의 역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시민지킴이단은 공항 울타리 밖에서 공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른바 ‘공항동산(혹은 매동산)’(주소 : 제주시 용담3동 2180-2번지 일대)이라는 곳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공항 활주로가 한눈에 보이고, 제주올레 17코스의 일부 구간이기 때문에 이 지점을 지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사진가들이 공항을 촬영하기 위해 찾는 꽤나 유명한 스팟이라고도 합니다. **시민과의 접근성 면에서 굉장히 좋은 입지로**, 시민지킴이단은 이곳에 안내판을 세우면 좋겠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안내판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활주로에 세워져 있는 표지석은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표지석의 모양을 제주4·3의 상징인 동백꽃 모양으로 하는 등의 포인트를 주어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해야 합니다.

공항 게이트와 같이 공항 방문객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도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3
관덕정

주소: 제주시 관덕로 19

관덕정은 세종 30년인 1448년 군사 훈련을 목적으로 제주목 관아의 일부로 세워졌습니다. 관덕정에서는 한국 현대사 최대 비극 중 하나인 제주4·3의 도화선으로 평가받는 ‘3·1절 발포사건’이 발생한 곳입니다.

1947년 3월 1일, 관덕정 인근 북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제28주년 3·1절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민중들은 관덕정 일대에서 가두집회를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기마 경찰의 말발굽에 어린아이가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해당 경찰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민중들은 이에 항의하며 기마 경찰을 쫓았습니다.

경찰은 쫓아오는 민중들을 향해 총을 발포해 민간인 6명이 죽고 8명이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의 무차별적인 발포는 전도적인 공분을 일으켰고, 제주도민들은 민관 총파업으로 대응했습니다. 공무원을 포함해 제주도 내 직장 95%가 동참한 전도적인 파업이었습니다.

파업 참가자들은 발포 관련자를 처벌하고 3·1사건 관련 애국인사를 검속하지 말 것, 경찰 내 친일 인사를 몰아낼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러한 민중의 요구를 외면했습니다. 더 나아가 파업이 일어난 제주를 좌익 본거지라고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하는 등 강경 진압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제주4·3 발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관덕정은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2019)에 포함된 유적지 30곳 중 한 곳입니다. 구체적인 시설 계획과 5천만 원의 예산이 계획돼 있음에도 아직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지킴이단은 안내판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관덕정으로 나섰습니다. 하루빨리 안내판이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직접 내용을 구성한 안내판을 들고 관덕정 앞에서 인간안내판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향후 정식 안내판이 설치된다면, 관덕정과 인도가 맞닿는 부근에 세워 사람들이 더욱 잘 볼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안내판 외에도 제주4·3을 상징하는 동백꽃 조형물을 설치해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해야합니다.”





주소: 제주시 삼도일동 305-8

#4 제주농업 학교오티터

제주농업학교는 해방 전후시기 제주도 내 최고의 교육기관이었습니다. 현재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가 있는 지역 일대가 제주농업학교 터입니다. 이 학교 전신은 1907년 설립된 사립 의신학교로 현재까지 10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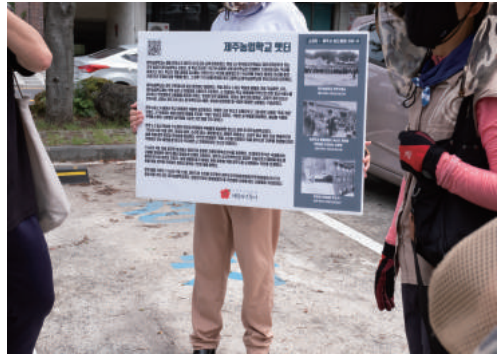
학교가 처음 세워질 당시에는 오현단 인근 부지에 세워졌다가 1940년에 전농로 일대로 자리를 옮겨 30여 년간 인재의 요람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이후 1976년에 현재의 제주고등학교(제주농업학교의 후신)자리로 이전했습니다.

제주4·3 당시 학살의 광풍이 가장 극심하던 시기, 제주농업학교에는 악명 높은 군 토벌대의 사령부가 주둔했습니다. 군 토벌대는 학교 운동장에 천막으로 만든 임시수용소를 설치하고 무분별하게 사람들을 체포해 가렸습니다. 현경호 민전 공동의장, 최원순 제주지법 법원장, 김호진 제주신보사 편집국장, 김방순 제주지검 검사 등 유력인사는 물론, 여성과 어린이 등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도 구금되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은 곧 죽음의 공간으로, 악랄한 고문 취조가 자행되었고 그중 많은 사람이 ‘즉결 처분’되었습니다. 4·3 당시 학살을 주도했던 박진경 연대장이 부하에게 암살당한 장소도 바로 이 제주농업학교였습니다. 1945년 9월 28일 항복조인식이 개최된 곳도 이곳 제주농업학교였습니다. 이 항복조인식은 국내에서는 서울을 제외하면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진행된 것입니다. 제주가 군사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별도의 항복조인식이 마련된 것입니다.

현재 제주농업학교 오티터에는 제주국제교육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등의 기관이 들어섰고, 주택가와 상점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주국제교육원 앞마당에 설치된 ‘제주농업고등학교이전기념비’ 표지석은 이곳이 학교의 오티터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제주4·3과 관련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시민지킴이단은 안내판 내용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제주농업학교 옛터로 나섰습니다. 시민지킴이단은 제주4·3을 비롯해 제주의 근현대사에 관한 내용을 담아 직접 제작한 안내판을 들고 안내판을 세울 장소를 살펴보고,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서 **인간안내판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제주농업학교 옛터는 일제 패망부터 제주4·3까지 많은 이야기가 중첩된 중요한 유적지입니다. 제주농업고등학교이전기념비가 세워진 인도와 인접한 부근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20210724_두 번째 답사

*이날 답사에서는 송령이골이 있는 서귀포 남원지역 출신 유족인 (사)제주다크투어 양성주 대표가 해설을 맡았습니다. 지역 역사에 정통한 양봉천 전 현의합장모 4·3유족회장님도 만나뵙고 유적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 송령이골



주소: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1974-3

송령이골은 1949년 1월 12일 의귀국민학교에서 벌어진 군 토벌대(2연대)와 무장대(인민유격대)간의 전투에서 전사한 무장대원들의 시신이 집단 매장된 곳입니다.

이 시기는 4·3의 전개 과정 중 '학살의 국면'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주민이 희생되었던 시기입니다. 당시 의귀국민학교에 주둔하고 있던 군 토벌대는 주둔지 인근에서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전개해 주민들을 찾아 학살했습니다. 일부는 바로 죽이지 않고 주둔지인 의귀국민학교로 끌고 갔습니다. 단기간 토벌대에 의해 잡혀와 학교에 감금된 주민이 1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무장대(인민유격대)는 수용된 주민들을 구하고 토벌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1949년 1월 12일 새벽 학교를 기습했습니다. 하지만, 기습계획을 미리 알고 있던 토벌대는 옥상에 기관총을 설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한 채 전투에 돌입했고, 무장대(인민유격대)측에 궤멸적인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의귀전투'라고 불리는 이날의 전투로 무장대원 51명이 전사하고 군 토벌대 측 4명이 숨을 거둡니다. 무장대원들의 시신은 학교 인근에 버려져 몇개월 동안 방치되었다가 토벌대의 지시로 의귀마을 외진 곳에 있는 '송령이골'로 옮겨집니다. 무장대원들의 시신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방치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2004년 도법스님을 단장으로 하는 생명평화탁발순례단이 송령이골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이곳에 표지판을 세우고 천도재를 지냅니다. 이후 매년 8월 15일이면 제주도 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송령이골 벌초를 하고 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송령이골에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기는 하지만, 봉분이랄 것도 없이 주위는 낮은 구릉이 몇 개 있고 봉긋하게 나온 모습을 보고 매장지라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제주4·3특별법이 제·개정되면서 어떤 이는 ‘진정한 봄이 왔다’, ‘우리는 해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늘진 곳이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바로 이 장소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민지킴이단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던 이들을 추념하고 진실된 4·3의 역사를 마주하기 위해 송령이골로 나섰습니다. 시민지킴이단은 무장대(인민유격대)의 시신이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얇은 봉분 앞에서 사전 자료 조사를 통해 구성된 유적지 안내판을 들고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송령이골에 대해 설명해 주신 양봉천 전 현의합장묘 4·3 유족회장님은 "이제까지 송령이골과 관련해 무장대원들의 죽음을 '전사(戰死)'라고 표현한 것은 시민지킴이단이 처음"이라며, "지금도 송령이골에 대해 말하는 게 조심스럽다. 그렇기에 오늘 시민지킴이단이 이 답사를 온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10918_세 번째 답사

*이날 답사에서는 (사)제주다크투어 양성주 대표가 해설을 맡았습니다.



주소: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264

#6
조천중학원
옛터

조천중학원은 해방기 제주의 대표적인 중등교육기관으로 제주4·3 발발 직전 제주도 민심에 불을 댕긴 **학생 고문치사 사건**과도 큰 연관이 있는 곳입니다. 1945년 일제에서 해방된 이후 제주도는 교육 열기에 휩싸였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합쳐 마을마다 초등학교 세우기 운동이 전개되었고, 면 단위별로 중등학교 세우기 운동도 일어났습니다. 조천중학원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46년에 개교했습니다.

학생은 주·야간반 모두 합해 2백여 명이었으며, 교사들이 모두 일본에서 공부한 유학생들로 구성되어 하귀중학원과 함께 교육 수준이 매우 높은 학교로 손꼽혔습니다. 무장대(인민유격대) 2대 사령관 이덕구도 교사로 재직하며 역사와 체육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조천중학원은 1947년 3·1절 시위와 같은 날 벌어진 경찰의 민간인 발포사건, 이에 항의하는 민·관 총파업으로 미군정과 서북 청년단의 주요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후 학생과 교사가 수시로 잡혀가 고문을 당하는 등 모진 탄압으로 사실상 수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아울러 조천중학원 바로 앞에 조천경찰지서가 있어 매일같이 경찰의 감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1948년 3월 6일 조천중학원 2학년생 김용철이 조천경찰지서에 연행되어 조사받던 중 고문치사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조천지역에서는 경찰의 고문에 의해 청년이 숨진 사실을 알게 되자 민심이 들끓었고, 조천중학원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은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김용철 학생의 죽음이 지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둘러댔지만, 부검 결과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이 사인으로 밝혀집니다. 김용철 학생이 고문에 의해 숨진 사실이 며칠 후에야 밝혀지면서 조천중학원 학생들은 조천지서 앞에 몰려가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시위를 주동한 학생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고 두려움과 공포감에 산에 오르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미군정도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조천지서 경찰관 5명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4·3이 발발하면서 경찰에 대한 조치는 흐지부지되었고, 이곳 조천중학원은 폐원조치되었습니다.

현재는 제주시동부보건소 조천 보건지소가 들어서 있습니다. 조천중학원 옛터는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2019.12)에 따라 유적지 정비가 계획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안내판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민지킴이단은 안내판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조천중학원 옛터로 나섰습니다. 안내판을 세울 위치를 선정하고 인간안내판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안내판은 현재 조천 보건지소 입구에 인도와 맞닿은 곳에 세워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 모아야 합니다.”



“안내판을 세우게 된다면, 바로 앞 조천지서 옛터와 바로 옆에 있는 조천지서 앞밭 학살터와 관련한 내용과 이정표를 함께 담아야 합니다.”



#7 서북청년단 특별중대 엠티터

주소: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79-4번지

제주4·3 기간 중 수많은 주민을 학살한 서북청년단 특별중대가 약 3개월간 주둔했던 곳입니다. 서청 특별중대의 정확한 주둔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민간인 피해가 가장 컸던 초토화 작전 전개 시점인 1948년 11월 전후에 이곳에 주둔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에 주둔했던 서청 특별중대의 규모는 30여 명에서 많게는 100여 명까지 된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숙식하며 바로 옆 감자창고에서 붙잡아 온 성산면, 구좌면, 주민들을 고문·취조했습니다.

한편, 서북청년단은 남과 북이 나뉘는 시기에 한반도의 서북지역, 즉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 지역 사람들이 남한지역으로 내려와 결성한 단체입니다. 이들은 북한지역에서 친일파 청산과 토지의 무상몰수·무상분배 등 정치적 변화에 내몰려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들이라 좌익에 대한 적개심이 강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는 빨갱이 섬’이라고 교육받아 제주도민을 죽이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주에는 1947년부터 서청 단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민들을 학살한 가장 대표적인 학살의 주범입니다. 이들은 군인도 민간인도 아닌 신분으로 주민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으며 수많은 주민들을 학살했습니다.

현재 이 건물은 폐허처럼 방치되어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적지의 실소유주는 개인이고, 이곳에 얽힌 역사를 알 수 있는 안내판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민지킴이단은 이 공간의 보존 및 안내판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서북청년단 특별중대 옛터로 나섰습니다. 시민지킴이단은 직접 제작한 안내판을 들고 서청 특별중대 옛터 앞에서 인간안내판 퍼포먼스를 펼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적지를 매입하는 등 보존 및 대책 마련이 아주 시급합니다”

“공권력을 업은 폭력집단의 세력화가 민중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곳으로 다크투어 유적지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곳입니다.”



“안내판을 세울 때 인도와 인접한 입구에도 안내판을 세워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모아야 합니다.”



#8 우뚝개동산

주소: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03-1번지 일대

우뚝개동산은 1949년 1월 2일 2연대 군인들과 서북청년단원 등 토벌대가 오조리 주민 20여 명을 ‘다이너마이트 사건(또는 던지기약 사건)’으로 집단 총살한 곳입니다. ‘다이너마이트 사건’은 제주에 새로 배치된 군 토벌대가 주민들이 다이너마이트로 자신들을 죽이려 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빌미로 주민들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해방 이후 일본군이 버리고 간 다이너마이트는 고기잡이용으로 쓰이 기도 했습니다. 또 1948년 겨울부터 마을마다 민보단 등이 결성됐는데 무장대(인민유격대)의 공격에 대비한 마을 경비용으로 마을 초소마다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학살이 벌어진 즈음인 1948년 12월은 기존에 제주에 주둔했던 9연대가 육지에서 내려온 2연대로 교체되는 시기였습니다. 2연대보다 앞서 제주에 주둔했던 9연대는 마을 경비 목적으로 주민들의 다이너마이트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후 맥락을 파악하지 않은 채 주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연대가 주민들을 학살한 것입니다.

1948년 12월 29일 군 토벌대는 주민들을 공회당(마을회관) 앞으로 집합시키고 주민들 중 화약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을 분류해 성산포 인근 감자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끌려간 주민들은 며칠간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1949년 1월 2일 성산일출봉에서 군 토벌대에 의해 집단 학살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새롭게 제주에 파견된 군인들이 지역에 대한 몰이해가 발단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학살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도 있습니다. 9연대를 이어받은 2연대의 과도한 경쟁의식과 실적 과시가 무차별적인 주민학살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곳의 위치는 제주도내 대표적인 관광지인 성산일출봉 매표소 옆에 무대가 조성된 공간입니다. 현재는 4·3 당시 역사를 설명하는 안내판은 물론이고 당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민지킴이단은 우뚝개동산에 안내판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직접 제작한 안내판을 들고 우뚝개동산 일대에서 인간안내판 퍼포먼스를 펼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4·3 당시 역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한 곳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안내판을 설치하게 된다면 우뚝개동산(성산일출봉) 근처 성산지역 4·3유적지를 함께 표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9 하귀중학원 엠티



주소: 1학년 교실: 제주시 하귀1리 549-1
2학년 교실: 제주시 하귀2리 1715-1

하귀중학원은 해방기에 설립된 대표적인 제주의 중등교육기관 중 한 곳입니다. 하귀중학원은 해방 후 제주에서 마을마다 학교 설립 운동이 한창이던 시기인 1945년 10월 15일에 주민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11월 18일 미군정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원생 50여 명을 모집해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8~9명의 교사가 국어, 공민, 수학, 역사, 위생 등의 수업을 했고, 수업은 대학 강의에 버금갈 정도로 수준이 높았다고 합니다.

교실은 1구 공회당(하귀1리 549-1번지)을 사용했고, 해가 바뀌고 학생이 늘어나자 교실이 모자라 2학년은 미수동 공회당(하귀2리 1715-1번지)에서 수업을 받았습니다. 하귀리는 일제시기 항일운동가를 많이 배출하고 왕성하게 항일운동을 벌였던 마을입니다. 일본이나 서울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사람들 중 일부가 하귀중학원 교사로 재직하며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학교 설립의 중심적인 인물은 해방 전후 휘문고보 출신의 고창옥 하귀중학원장이었습니다. 하귀중학원생들은 4·3의 직접적인 도화선으로 평가받는 1947년 3·1절 기념대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전도적으로 벌어진 3·10 총파업에도 동참했습니다. 이에 미군정은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대대적인 검거선봉을 일으켰고, 하귀중학원생 대부분이 제주경찰서에 구금되기도 했습니다.

4·3의 와중에는 하귀중학원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잡혀가 죽거나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했고, 학생들은 자연스레 쫓기는 신세가 되거나 산으로 올라 무장대(인민유격대)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군정의 계속된 탄압으로 학교 사정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에서 조정구라는 사람이 내려와 하귀중학원을 인수해 4·3 발발 전후에 단국중학원으로 학교명을 개칭해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군정의 검거와 탄압이 계속되면서 단국중학교는 4·3 발발 후 10월~11월경에 폐교되었습니다.

현재 하귀중학원 1학년 교실 옛터는 상가건물로 이용되고 있고, 2학년 교실 옛터에는 교회가 들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는 안내판은 어디에도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민지킴이단 안내판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직접 제작한 안내판을 들고 하귀중학원 2학년 교실 옛터에서 인간안내판 퍼포먼스를 펼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인도와 인접한 교회 입구에 안내판을 세워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관심을 유도해야 합니다.”



“안내판 모양이 기존의 획일적인 사각형이 아닌 4·3의 상징인 동백꽃 모양으로 만들면 사람들의 이목을 더 효과적으로 끌 수 있을 듯합니다.”



주소: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866-1번지 일대

#10 구억국민학교 옛터

구억국민학교는 4·3 발발 초기인 1948년 4월 28일 국방경비대 김익렬 9연대장과 인민유격대(무장대) 사령관 김달삼이 이른바 ‘4·28 평화협상’을 벌였던 곳입니다. 협상의 내용은 ① 72시간 내에 전투를 완전히 중지하되 산발적으로 충돌이 있으면 연락 미달로 간주하고, 5일 이후의 전투는 배신행위로 본다, ② 무장해제는 점차적으로 하되 약속을 위반하면 즉각 전투를 재개한다, ③ 무장해제와 하산이 원만히 이뤄지면 주모자들의 신변을 보장한다 등이었습니다.

이 평화협상은 성사되는 듯했으나 며칠 후인 1948년 5월 1일 오라리 연미마을에서 우익청년단체(서정·대청단원)에 의해 일어난 ‘오라리 방화사건’ 등으로 결렬되었습니다. 방화사건 소식을 접한 김익렬 연대장은 대단히 분노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장대의 소행으로 알고 무장대가 먼저 평화협상을 깨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익렬 연대장은 마을에 직접 찾아가 현장 조사를 벌였고, 마을 주민 10여 명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받아 방화사건이 무장대가 아닌 우익청년단원들의 소행임을 밝혀냈습니다.

김익렬 연대장은 조사 결과를 미군정에 보고하지만, 미군정은 이를 묵살하고 ‘폭도들이 자행했다’는 경찰 측의 보고를 수용합니다. 결국 오라리 방화사건은 4·28 평화협상이 결렬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토벌대가 강경한 토벌 일변도의 작전을 택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버립니다.

현재 이곳은 옛날 학교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으며, 학교 터 일부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나머지는 농경지로 남아있습니다. 아파트 화단에 작은 표지석만이 이곳이 구역국민학교 옛터임을 알려주고 있지만, 이마저도 풀잎에 가려져 그냥 지나치기 십상입니다.



시민지킴이단 구역국민학교 옛터에 안내판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직접 제작한 안내판을 들고 인간안내판 퍼포먼스를 펼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구역국민학교는 4·3의 역사적 맥락에서 아주 중요한 기로였던 4·28평화협상이 이뤄졌던 곳입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당시 역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공감할 수 있도록 실소유주와의 협상을 통해 평화협상 의의와 내용 등을 알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03 제주4·3유적지 시민지킴이단을 알리다!

시민지킴이단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각종 콘텐츠 제작 및 홍보, 활동소식을 언론에 기고하고 라디오 방송에도 출연해 활동을 홍보했습니다.

언론 기고



제주4·3유적지 시민지킴이단의 활동 기사가 오마이뉴스 사회분야에 메인 기사로 떴습니다!

끝나지 않은 역사, 4·3은 아직도 현재진행중

[제주4·3 유적지 시민지킴이단, 유적지 탐사가기 @]

21.08.30 19:19 | 최종 업데이트 21.09.30 11:19 | 제주4·3유적지(jeju43tour) >

👍 10 👎 0 🗨️ 0 📄 1 📧 0 📱 0 📌 0 📌 0

원고료보유원탁기

(사)제주4·3유적지는 지난월 11일 제주도 내 4·3유적지 유적지 100곳을 대상으로 그곳에 조성된 안내판 내용을 분석 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활동을 벌였고 이에 만큼 결과는 (후략)이런 조사결과(후략)을 알렸습니다. 보고서는 여러 언론 및 각종 행사에 보도되었고 제주4·3유적지 홈페이지에서도 주요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주4·3유적지는 앞서 조사한 유적지 중 역사성, 보존성, 시급성이 높을수록 유적지 안내판이 존재하지 않거나 안내판 내용이 부실한 10곳의 유적지를 선정해 시민들과 유적지 안내판을 만들어 보고 이를 달리는 시민 참여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사원문]



'시국'은 정말 좋아진 걸까... 제주4·3의 그늘을 마주하다

[제주4·3 유적지 시민지킴이단, 유적지 탐사가기 @] 국가폭력 희생자 위령제 확대기의 무궁화

21.07.30 08:11 | 최종 업데이트 21.07.30 09:54 | 제주4·3유적지(jeju43tou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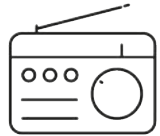
👍 10 👎 0 🗨️ 0 📄 1 📧 0 📱 0 📌 0 📌 0

원고료보유원탁기

(사)제주4·3유적지는 지난월 11일 제주도 내 4·3유적지 유적지 100곳을 대상으로 그곳에 조성된 안내판 내용을 분석 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활동을 벌였고 이에 만큼 결과는 (후략)이런 조사결과(후략)를 알렸습니다. 보고서는 여러 언론 및 각종 행사에 보도되었고 제주4·3유적지 홈페이지에서도 주요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주4·3유적지는 앞서 조사한 유적지 중 역사성, 보존성, 시급성이 높을수록 유적지 안내판이 존재하지 않거나 안내판 내용이 부실한 10곳의 유적지를 선정해 시민들과 유적지 안내판을 만들어 보고 이를 달리는 시민 참여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사원문]



방송 출연



KBS 1 라디오



CBS 라디오



제주4·3유적지 시민지킴이단의 활동을 라디오 방송에서 소개했습니다. 실제 지킴이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생님과 함께 출연하여 시민지킴이단의 전반적인 활동과 관련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카드뉴스

#1 관덕정

제주4·3유적지 시민지킴이단



제주4·3유적지 시민지킴이단

도령마루




제주4·3유적지 시민지킴이단

‘4·3역사의 조난지 도령마루’
‘해태동산으로 불리는 이곳’
‘잊혀진 학술터 도령마루’

제주4·3유적지 시민지킴이단

제주농업학교 옛터

제주시 권농로 88 일대



봄이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이곳은 제주농업학교 옛터입니다.
4·3 당시 이곳 제주농업학교 옛터에서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까요?

제주4·3유적지 시민지킴이단

어떤 활동들을 펼쳤나요?

제주4·3유적지 시민지킴이단은 이곳에 안내판을 세우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안내판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제주4·3유적지 시민지킴이단

서북청년단 특별중대 옛터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79-4번지



이곳에 주둔했던 서북 특별중대의 규모는 30~100여 명이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서북은 이곳에서 숙식하며 밤로 밀 감자참고에서 불잡야 온 성산면, 구좌면 주민들을 고문·취조했습니다.
성산면 희생자의 70%가 서북 특별중대에 의해 1948년 11월부터 1949년 2월까지 희생되었습니다.

제주4·3유적지 시민지킴이단

제주4·3유적지 시민지킴이단

지원  아름다운재단



유적지 안내판

서북청년단 특별중대 엠티

소재지: 섬산을 섬산리 179-4번지

제주4·3 기간 중 수많은 주민을 학살한 서북청년단 특별중대가 약 3개월간 주둔했던 곳이다. 서청 특별중대의 정확한 주둔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민간인 피해가 가장 컸던 초토화 작전 전개 시점인 1948년 11월 전후에 이곳에 주둔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4·3연구소에서 펴낸 「제주4·3유적 II」(2003)에는 이곳에 주둔했던 서청 특별중대의 규모가 약 100여 명이었다는 증언이 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발간한 「4·3 관련 교육계 피해 조사 보고서」(2001)에는 30~40명 정도가 주둔했다는 증언이 실려있다. 이들은 이곳에서 숙식하며 바로 옆 감자창고에서 불잡아 온 섬산면, 구좌면 주민들을 고문, 취조했다.

한편, 서북청년단은 남과 북이 나뉘는 시기에 한반도의 서북지역, 즉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 지역 사람들이 남한지역으로 내려와 결성한 단체이다. 소련이 전주했던 북한지역에서 친일파 청산과 토지의 무상몰수·무상분배 등 정치적 변화에 내몰려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들이라 좌익에 대한 적개심이 강했다. 이들은 '재주는 팔경이 섬'이라고 교육받아 제주도민을 죽이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제주에는 1947년부터 서청 단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서청 특별중대는 1948년 10월 17일 포고령 이후 제주에 있었던 서청 출신 80여 명이 군인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편성되었다. 제주도민들을 학살한 가장 대표적인 학살의 주범이다. 이들은 군인도 민간인도 아닌 신분으로 주민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으며 수많은 주민들을 학살했다.

현재는 건물도 폐허처럼 방치되어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적지의 실소유주는 개인이고, 이곳에 얽힌 역사를 알 수 있는 안내판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공권력을 얻은 폭력집단의 세력화가 민중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보여주는 곳으로 다크투어 유적지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유적지 실소유주와의 협의를 통해 이 공간을 보존하고, 제주4·3 당시 이 장소에서 악명 높았던 서북청년단 특별중대가 주둔했으며, 이곳에서 많은 주민들이 고초를 당했음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제주다크투어





하귀중학원 엠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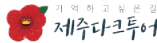
소재지 : 하귀1리 549-1 (1학년 교실)
하귀2리 1715-1(2학년 교실)

하귀중학원은 해방기에 설립된 대표적인 제주의 중등교육기관 중 한 곳이다. 하귀중학원은 해방 후 제주에서 마을마다 학교 설립 운동이 한창이던 시기인 1945년 10월 15일에 주민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11월 18일 미군정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원생 50여 명이 모집해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8~9명의 교사가 국어, 공민, 수학, 역사, 위생 등의 수업을 했고, 수업은 대학 강의에 버금갈 정도로 수준이 높았다고 한다. 교실은 1구 공회당(하귀1리 549-1번지)을 사용했고, 해가 바뀌고 학생이 늘어나자 교실이 모자라 2학년은 마수동 공회당(하귀2리 1715-1번지)에서 수업을 받았다.

하귀리는 조천지역과 더불어 일제시기 항일운동가를 많이 배출하고 왕성하게 항일운동을 벌였던 마을이다. 일본이나 서울 등지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특색한 사람들 중 일부가 하귀중학원 교사로 재직하며 학생들을 가르쳤다. 학교 설립의 중심적인 인물은 해방 전후 고보 출신의 고창욱 하귀중학원장이었다. 하귀중학원생들은 4·3의 직접적인 도화선으로 평가받는 1947년 3·1절 기념대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그뿐만 아니라, 전도적으로 벌어진 3·10 총파업에도 동참한다. 이에 미군정은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대대적인 검거선동을 일으켰고, 하귀중학원생 대부분이 제주경찰서에 구금되기도 했다.

4·3의 와중에는 하귀중학원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잡혀가 죽거나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했고,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쫓기는 신세가 되거나 산으로 올라 무장대 활동을 하기도 했다. 미군정의 계속된 탄압으로 학교 사정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그러다가 서울에서 조정규라는 사람이 내려와 하귀중학원을 인수해 4·3 발발 전후에 단국중학원으로 학교명을 개칭해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미군정의 검거와 탄압이 계속되면서 단국중학교는 4·3 발발 후 10월~11월경에 폐교되었다.


현재 하귀중학원 1학년 교실 엠티는 상가건물로 미용되고 있고, 2학년 교실 엠티에는 교회가 들어서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는 안내판은 어디에도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유적지의 삼스유주와의 협의를 통해 4·3 당시 하귀중학원의 역할이나 하귀중학원 소속으로 당시 지역의 여론을 주도했던 고창욱 하귀중학원장 등 대표적인 인물, 유적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유적지 정비 계획이 필요하다.



제주다그투어



송림이골



남원읍 의림리 1974-3

1949년 1월 12일 의귀국민학교에서 벌어진 2연대 군인과 인민유격대(우장대) 간의 전투에서 전사한 인민유격대원(우장대)들의 시신이 집단 매장된 곳이다. 이날 전투로 군인 측은 4명이 전사한 반면, 인민유격대원(우장대)은 51명이 사망했다.


이 당시 의귀국민학교에는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감금되어 있었다. 2연대는 1949년 1월 9일을 전후해 사람들을 잡아들였다. 토벌대는 어떠한 기준도 없이 학교에 갇힌 사람들을 지옥해 총살했다.

인민유격대(우장대)는 1월 12일 학교에 수용된 주민들을 구하고 군 토벌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학교를 습격했다. 습격에는 인민유격대(우장대) 200여 명이 참전했다. 그러나 습격 사실을 사전에 파악했던 군 토벌대는 학교 측상에 기관총을 설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한 상태로 인민유격대(우장대)와 교전을 벌였다. 군 토벌대는 교전이 끝난 후 학교에 수감되어 있던 주민 80여 명을 학살했다.

인민유격대(우장대)의 시신은 몇 개월 동안 학교 뒤편에 버려졌다가 토벌대의 지시에 의해 이곳 ‘송림이골(숙병잇골)’로 옮겨졌다. 그때 당시의 유족이 있었다고 해도 나설 수 없었다. 풍년이랄 것도 없이 주위는 낮은 구름이 몇 개 있고 볼곳하게 나은 모습을 보고 매장지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인민유격대(우장대) 50여 명의 시신은 흙으로 대충 덮은 채 반세기 넘게 송림이골에 방치되었다.

잠혈과 관측만 구성하던 인민유격대(우장대)의 가요는 2004년 도합스님을 단장으로 하는 생명평화학살순례단이 송림이골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관심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생명평화학살순례단은 이곳 송림이골에 인민유격대(우장대)의 시신이 버려졌다는 얘기를 듣고 이곳에 표지판을 세우고 천도재를 지냈다. 이후 매년 8월 15일, 시민사화단체들이 모여 송림이골 별초를 함께 하고 있다.

제주4·3특별법이 제·개정되면서 어떤 이는 ‘진정한 풀이 왔다’, ‘우리는 해냈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아직도 그늘진 곳이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바로 이 장소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들을 알려주고 있다. 제주4·3이 진정한 화해와 상생의 길로 가려면 이곳 송림이골에 묻혀있는 인민유격대(우장대)의 죽음에 대해 가까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지역학교성명
제주다크투어



제주4·3유적지 시민지킴이단



제주4·3유적지 시민지킴이단은 약 4개월에 걸쳐 유적지에 대한 사전 조사 및 현장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시민지킴이단이 지키기 위해 찾아간 유적지는 모두 10곳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수백 개에 달하는 4·3유적지들이 관심 밖에 놓여있습니다.

제주4·3을 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알려 나가기 위해서는 이 같은 유적지들이 더 잘 보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행정적인 차원에서 유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시급하지만, 유적지들이 오래오래 유지되려면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 또한 중요합니다.

제주다크투어가 시민참여형 캠페인을 진행하는 이유도 시민들 스스로가 유적지를 지키는 주체가 되어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제주다크투어는 앞으로도 시민참여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제주4·3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전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주의 4월을 기억해주세요

(사)제주다크투어와 함께해 주세요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힘을 저희는 믿습니다.
제주다크투어와 함께 제주의 역사를 기억하고 지켜가는 힘이 되어주세요.

정기후원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옆면의 후원약정서를 작성하신 후, 스캔 혹은 사진을 찍어 메일(jejudarktours@gmail.com)로 보내주시면 매월 지정하신 날짜에 일정 금액이 CMS 자동이체를 통해 기부됩니다.

비정기후원

일시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농협 301-0246-6636-91 예금주: (사)제주다크투어

SNS 친구 되기

-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jejudarktour
- 인스타그램 [@jejudarktours](https://www.instagram.com/jejudarktours)
- 블로그 blog.naver.com/jejudarktours

제주다크투어의 SNS를 방문해 제주다크투어의 소식을 받아보세요.
좋아요 누르기와 **공유**는 더 많은 분들께 제주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제주다크투어에서는 한 달 동안의 제주다크투어의 활동이 담긴 뉴스레터와
다크투어 유적지 소개, 행사 안내 메일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구독을 통해 제주다크투어의 이야기에 함께해 주세요.

- 뉴스레터 구독 신청 www.jejudarktours.org



기억하고 싶은 길

제주다크투어

(사)제주다크투어 후원회원 가입신청서

01 회원정보

이 름 _____

생년월일 _____

휴대전화 _____

주 소 _____

이 메 일 _____

02 후원정보

후원금 1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기타()원

출금일 14일 27일

출금은행 _____

계좌번호 _____

예금주명 _____

개인정보 이용동의

- 수집 및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부러 자동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권리 행사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3자 제공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금융기관, 통신사, CMS 업체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자동이체서비스 제공 및 자동이체 동의 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부러 자동이체의 종료일(해지일)까지 단,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업체가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시너지 처리되지 않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예금주)은 신청정보, 금융거래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상기와 같이 CMS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회원가입서 작성 후 사진을 찍어 jejudarktours@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가 되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021 제주4·3유적지 시민지킴이단 활동보고서

기획/편집 (사)제주다크투어
제작 (사)제주다크투어
디자인 (사)제주다크투어
인쇄 세진인쇄

발행일 2021년 10월
발행인 양성주
발행처 (사)제주다크투어
주소 (6318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93, 2층
전화 064 805 0043
홈페이지 www.jejudarktours.org

후원계좌 농협 301-0246-6636-91 예금주 : (사)제주다크투어

이 홍보물은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지원으로 제작하였습니다.



JEJU DARK TOURS
The Unforgettable Past

R
e
m
e
m
b
e
r



Jeju 4-3



기억하고 싶은 길

제주다크투어

제주다크투어는 여행을 통해 오감으로 역사를 느끼고
다시는 제주4·3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4·3유적지 기행뿐만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유적지 기록,
4·3강좌 개최 및 국제연대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318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93, 2층

Tel. 064 805 0043 Fax. 070 8228 0043

Website. www.jejudarktours.org

Facebook. www.facebook.com/jejudarktour

Email. jejudarktours@gmail.com

Blog. blog.naver.com/jejudarktours

Instagram. [@jejudarktours](https://www.instagram.com/jejudarktours)